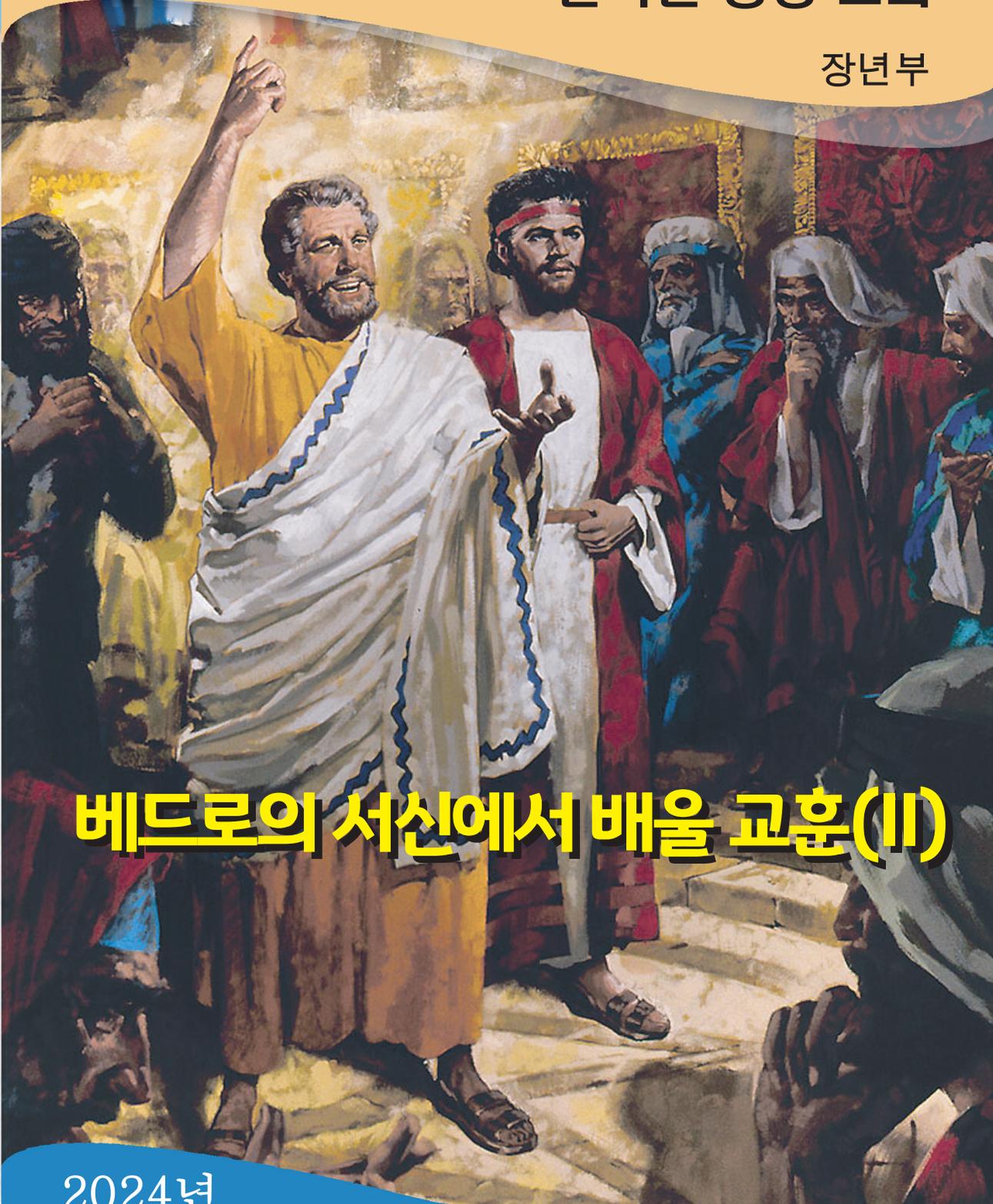


안식일 성경 교과

장년부



베드로의 서신에서 배울 교훈(II)

2024년
7월~9월

목 차

1. 기적적인 탈출.....	5
2. 부지런히 사다리를 올라감.....	10
3. 다른 사람을 존경함.....	15
4. 최고의 목표.....	20
5. 확고히 하라.....	26
6. 현대 진리로 강화됨.....	31
7.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언.....	36
8. 부패한 시대의 순결함.....	41
9. 하늘의 빛을 소중히 여김.....	46
10. 우리의 마음을 무장함.....	52
11. 목적에 맞는 추가 시간.....	57
12.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62
13. 끝까지 인내함.....	67

안식일 성경교과

매일의 양식인 안식일 성경 교과는 다른 부가적인 주석을 배제하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만을 기초로 하였다. 인용문들은 가능한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어떤 경우에 사용된 괄호[]는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맥의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용문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편 저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발 행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경북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983-23(송죽 2리 32번지)

발행인 :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안식일 학교부

인 쇄 : 의성사

전 화 : 054) 435-1843

팩 스 : 054) 434-4521

(농 협) 351-0513-4988-73 (예금주)사단법인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우체국) 700377-01-005190 (예금주)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SDA개혁운동 한국 합회 홈페이지 주소 : www.sdarm.or.kr

(상기 주소를 통해서도 성경교과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

그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올바른 장소에 왔다: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계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사도행적, 529.

“베드로후서 1장에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으며, 승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 진리는 이 장에 제시된 방식을 통해 마음에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계명을 실천하고, 더욱 많이 권장하자.” -성경 주석[화잇주석] 7권, 942.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시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역사상의 이 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러한 엄숙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전 세계 안식일학교 학생들은 베드로의 서신에서 배울 교훈(II)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절실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극기를 즐겨 실천하고자 하는가?” -교회증언 9권, 186.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찌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선택, 즉 한 번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없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주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다. ...

성경은 한때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를 기뻐했던 사람들은 배도에 빠져 멸망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로 단호하고 매일의 회심이 필요하다.

한 번 은혜 안에,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선택의 교리를 옹호하려는 모든 사람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분명한 사실에 반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이 물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114, 1115.

“그분의[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고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비취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그러므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욱 고상한 어떤 위치를 사람이 욕망할 수 있겠는가?” -교회증언 5권, 306. 아멘!

-세계 대총회 안식일학교부

라이베리아의 예배당, 학교, 사무실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아프리카의 마지막 개척지 중 하나로 꼽히는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에 위치한 열대 우림 국가로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 대서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5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85.3%는 기독교 신앙(주로 재림교인을 포함한 개신교)을 믿고, 12.6%는 이슬람교를 믿으며, 1.5%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고, 0.6%는 부족 종교를 믿는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인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국가의 구조를 파괴한 14년간의 파괴적인 내전(1989~2003)으로부터 여전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은 쇠퇴했고 기반 시설과 산업은 혼란에 빠졌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2011년 라이베리아 형제들은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대총회 홈페이지(www.sdarm.org)를 통해 제철일 재림교 개혁운동 교리에 이끌려 2012년 이곳에서 사역을 조직하게 되었다. 몬로비아 시를 라이베리아의 15개 카운티 중 3개 카운티에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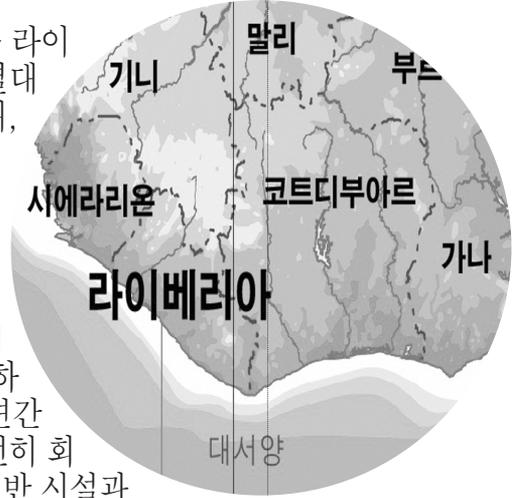
내란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는 망가졌고, 정당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다.

라이베리아에서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배 장소는 물론 본부와 의료 선교 활동을 강화할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안식일에 예정된 시험과 추가 수업을 놓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9년에 (사망한) 한 형제가 학교, 요양원, 사무실 공간 건립을 위해 토지 일부를 기꺼이 기부했다. 예배당과 필요한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봉 카운티 하부 난폴라(콜린스 농장)에 한 에이커의 부지와 몬로비아에 약 1/4에이커의 또 다른 부지를 마련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라이베리아에서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첫째 안식일 연금으로 도와달라고 전 세계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친절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온 형제자매들로부터



기적적인 탈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찌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

“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찌어질 것을 피하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교회증언 9권, 155.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737~746; 산상보훈, 76~78.

첫째 날(일요일)

6월 30일

1. 목적이 있는 서신

가. 이 서신은 누구에게, 왜 전달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벧후 1:1.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은 명상해 볼만한 참으로 웅장한 주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명상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자기의 의, 즉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만한 여지가 없다. 이 장을 보면 이제는 다 이르렀다고 멈출 만한 곳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단계마다 계속적인 진보가 있을 뿐이다” -성경주석 [화잇주석] 7권, 942.

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어떤 보상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흘러들어오는가? 벧후 1:2.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더하기의 방법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함으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곱하기 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벧후 1:2).’ -교회증언 6권, 148.

2. 하나님을 아는 축복

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축복된 확신이 오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환영받을 수 있는가?
렘 24:7; 욥 22:21~23, 29.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얹으로써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사단의 흑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비취게 하고, 그분께서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고 지탱해 주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41, 742.

나.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호 13:4; 엡 3:17~19.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품성과 직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빈약한 견해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을 편협하게 했고 거룩한 생애에서의 그들의 전진을 크게 훼손시켰다.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적 신앙은 부진한 상태이다. 많은 형식과, 많은 기계적인 것과, 많은 입술만의 신앙이 있다. 그러나 더욱 깊고 더욱 확고한 것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 들어가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43.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 16:27)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정된다면, 그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 들어 가셨’(히 6:19, 20)음을 입증할 것이다. 실망이 다가올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환난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갖가지 불만의 요인 때문에 난처해 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보호는 각 가정에 미치고 각개인을 둘러싼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시켜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히 12:10)하시고 그분의 임재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허락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4). 그러나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교회증언 5권, 742.

3. 찾음과 발견함

가. 오늘날 세계의 상태를 설명하라. 요일 5:19.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되는가? 벧후 1:3.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과제이다. 그는 그들이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심령을 낙담케 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낙담케 하는 영향으로 둘러싸인 악과 타락의 세상에 처해 있다. 구주께서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무서운 악, 도처에 있는 반역과 허약에 그들의 눈을 고정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슬픔과 의심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맨 먼저 대기만자의 교묘한 역사를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경험에서 용기를 잃게 하는 것들을 숙고하는 한편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그분의 비할데 없는 사랑은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의도하는 그대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것처럼 작게 생각하면서 의의 원수가 이처럼 큰 능력으로 옷 입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대(強大)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 자신을 구출해 내기에 전혀 무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정해 놓으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께서는 그 싸움을 우리를 위하여 싸울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 넉네히 이’(롬 8:37)길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740, 741.

나. 영적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잠 9:10; 15:14[상단].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률,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치료봉사, 409.

4.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슬프게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벧후 1:4.

“우리가 병든 경험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체 없이 열렬하게 일을 시작해야 한다. 침례 서약에 성실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열성은 형식과 세속적인 야망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식어 버렸다. 가끔 그들의 감정이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회개와 자복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한다.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55.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닮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인류의 선두에 서서 죄의 점이나 흠이 없는 품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인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것처럼 약하고 무능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는 대신에 자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기질을 연구하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특성에 맞는 위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9권, 187.

나. 우리가 이 약속들을 정말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롬 3:31; 8:14.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깨닫고 완수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 주기로 서약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의 경건한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의 표현인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 이 법칙은 우리에게 ‘더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반향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갈망하라. 그렇다. 오랫동안 의를 갈망하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꼈다. 약속은 ‘너희가 충만하리라’이다.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일은 평강이요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확신이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성경 훈련학교, 1904.2.1.

5. 놀랍도록 구별하심

가. 인류의 모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라. 요 17:17; 시 119:15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따르기를 요구하신다. 거룩함은 그분의 영광의 밝은 광선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마음과 정신은 잘못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읽고 연구되어야 한다. 하늘의 떡은 생명의 일부가 되기 위해 먹고 소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구주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다.’

천사들은 우리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과 협력하여 일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하셨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생을 향한 노력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경 훈련학교, 1904.2.1.

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고후 6:15~18; 7:1.

“우주의 창조자는 그대에게 다정한 아버지로서 말씀하신다. 그대가 세상에서 정을 떼고 그 오염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정욕으로 부패한 것을 피한다면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대를 그분의 가족에 입양시키시며, 그대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세상 대신에, 순종의 삶을 조건으로 온 천하 왕국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영원한 영광과 영원무궁 계속될 생명을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2권, 44.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7

1. 더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2.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3. 오늘날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나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였는가?
4.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닦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 이 교훈에 따르면 나의 결점 있는 성품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부지런히 사다리를 올라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벧후 1:5, 6)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된 성화의 사다리를 제시하는데, 그 사다리의 기초는 땅에 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다. 우리는 한 번의 노력으로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야 한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투쟁에서 우리는 현기증이 나고 기절하고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리뷰 앤 헤랄드, 1885.12.1.

참조할 연구교재: 치료봉사, 497~502.

첫째 날(일요일)

7월 7일

1. 필수적인 그리스도인 특성

가. 믿음을 부지런히 키우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벧후 1:5[상단].

“복음 신앙을 받아들인 후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일은, 덕스럽고 순결한 원칙을 더하고, 참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교회증언 1권, 552.

“악에 저항하기 위해 항상 경계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러나 자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가치가 있다. ...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미덕이 없으면 누구도 명예로운 명성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고귀한 열망과 정의에 대한 사랑은 유전되지 않는다. 품성은 구매할 수 없다. 유혹에 저항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일생의 과업이며, 원대한 목적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상한 결과이다. 그대가 소유한 품성의 탁월함은 그대 자신의 노력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친구들은 그대를 격려할 수 있지만 그대를 위해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소원하고, 한숨을 쉬고, 꿈꾸는 것은 결코 그대를 위대하거나 선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올라가야 한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너희 의지의 모든 강한 힘을 다하여 일하라.”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87.

2. 구원에 필요한 지식

가. 우리가 베드로의 사다리를 오를 때 획득하도록 부름받은 지식의 유형을 설명하라. 벵 후 1:5[하단]; 요 17:3.

“사도는 신자들 앞에 그리스도인 완전의 사다리를 제시하는데, 그 사다리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며,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을 것이다. ...

복음의 믿음을 받은 신자의 첫 번째 일은 덕과 순수한 원칙을 더하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정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지식은 모든 참된 교육과 모든 참된 봉사의 기초이다. 이것이 유혹을 막는 유일한 실제적인 보호책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어졌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좋은 은사도 거두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912.9.19.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속량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찢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와 품성의 모든 결함에서 깨끗해진다. 우리는 하나의 죄 된 성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그릇된 경향이 성품에서 제거되고, 우리는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된다. 우리들이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본성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주석[화인주석] 7권, 943.

나. 그리스도인 성장에 필요한 두 번째 종류의 지식을 말해보라. 시 77:6; 고후 13:5.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철저히 속수무책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8권, 316.

3. 통제력을 벗어나지 않은 자제력

가. 영감 받은 복음 교사들은 어떤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행 24:24, 25; 빌 4:5.

“나는 베드로의 여덟 계단으로 이루어진 성화의 사다리에 대해 약 한 시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나는 절제와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극기와 자제를 가르치고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힘을 희생시키면서 식욕과 취향의 방종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자제와 극기에 관한 교훈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교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을 교육해야 하며,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 있는 사업이다. 지난 세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의 지포였다.

만약 부모들이 건강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리고,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물질을 버리고, 동시에 자녀에게 자제력을 가르치고, 도덕적 능력을 키우도록 품성을 교육했다면, 이제 우리는 부절제라는 사자를 다룰 필요가 없다. 방종의 습관이 형성되고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힘으로 강화된 후에, 젊었을 때 합당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을 끊고 자신과 부자연스러운 식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숙해졌을 때 그리스도인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절제교육은 아이가 요람에 누워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리뷰 앤 헤랄드, 1876.5.11.

나. 사다리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벤틀 후 1:6(상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 존재의 법칙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부절제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더 높은 능력을 동물적 식욕과 정욕에 굴복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우세할 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인간은 가장 높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통제에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식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부절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절반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은 3분의 2를 희생한다.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정신의 더 높은 능력의 도덕적이고 활발한 활동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건강 개혁자, 1878.3.1.

4. 절제 없이 인내는 불가능함

가. 절제는 어떻게 사다리의 다음 필수 특성으로 이어지는가? 벵후 1:6[중단]; 눅 21:19.

“신경과 뇌의 기능 또는 신체의 기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습관이나 습성은 절제 뒤에 따르는 다음 은사 … 인내를 불가능하게 한다.

부절제 하는 사람, 방종 하는 자극제들-맥주, 술, 강한 자극성 음료, 차, 커피, 아편, 담배 혹은 다른 어떤 이 같은 요소들, 즉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사용하므로 방종하는 자는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들이 인내라는 은사를 더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발을 반드시 올려놓아야 할 사다리의 한 계단인 것이다.

음식, 의류, 일, 규칙적인 시간, 건강적인 일 등 우리가 생명과 건강의 올바른 한계 안에 우리 자신을 두고 열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지식을 통하여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69.

나. 절제는 인내를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며,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둘 다 왜 그토록 중요한가? 계 14:12.

“식욕의 만족으로 위를 남용하는 것이 교회가 겪는 대부분의 시련 중 많은 근원이 된다. 부절제하고 불합리하게 먹고 일하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게 말하고 행동한다. 부절제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부절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 부절제하게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음식을 먹는 죄는 소화 기관의 건전한 기능을 파괴하고, 뇌에 영향을 미치며,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하여,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 중 많은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납되는 상태가 되어 그분의 소유인 몸과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관심과 열성을 다하여 그들의 식욕의 만족을 부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진리를 아름답고 분명한 그대로 깨달아 그들의 생애에 실천하게 되고, 현명하고 슬기롭고 솔직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에게 진리의 사업을 비난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교회중언 1권, 618, 619.

5. 인내의 아름다운 결과

가. 우리 안에서 발전하기 위한 인내의 실천은 무엇인가? 벵후 1:6(하단).

“성급함은 다툼과 비난과 슬픔을 가져온다. 그러나 인내는 가정생활의 경험에 평화와 사랑의 향유를 부여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귀중한 인내의 은혜를 행사할 때, 그들은 우리의 정신을 반영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일 것이다. 인내는 교회, 가족, 지역 사회의 일치를 추구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짜여 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이 진보의 단계에 올라 믿음과 덕, 지식, 절제에 인내의 은총을 더해야 한다.

‘인내에 경건을’ 경건은 그리스도인 성품의 열매이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은혜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임을 나타낸다면,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되시고 가족의 일원이 되셔야 한다. 종교는 가정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족임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가 온화하고 관대할 것임을 깨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의와 경건을 배양함으로써 하늘 궁정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관한 것들에 있을 것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존경했다. 그는 집에서나 사업에서나 ‘이것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그는 성품이 변화되어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그 길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리뷰 앤 헤랄드, 1888.2.2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4

1. 왜 나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덕목을 배양해야 하는가?
2.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생활의 어떤 면에서 더 절제해야 하는가?
4. 점점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회에서 인내심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에녹의 예시처럼 경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존경함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롬 12:10)

“다른 사람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키워라. 자아에 덜 만족하고 자아를 덜 신뢰하며, 인내와 참음과 형제 사랑을 간직하라.” -교회증언 4권, 133.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167~177.

첫째 날(일요일)

7월 14일

1. 친절

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무엇이 흘러나와야 하는가? 벵후 1:7[상단]; 막 12:28~31.

“표준을 높이고, 더욱더 높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 십계명의 처음 네 조항은 창조주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려 준다. 하나님께 대해 그릇된 자는 이웃에 대하여 진실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교만은 허무한 것에 들뜨게 하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이기주의를 쫓아내 버린다.” -교회증언 9권, 211, 212[저자의 강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들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게 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고 산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섬유질로 이어질 때 우리들은 풍성한 산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들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써 세상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7.

2.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친절

가. 형제 우애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증인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요일 4:20, 21; 약 3:17.

“우리는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오, 우리의 품성에 이러한 자질을 더하기 위해 우리는 이 단계를 얼마나 밟아야 하는가! 우리 가정의 대부분에는 완고하고 투쟁적인 정신이 나타난다. 비판적인 말과 불친절한 행동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독재적인 명령과 오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는 하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형제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형제애를 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가져야 한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사람의 참된 가치를 평가하신다. 만일 그가 땅의 집에서 불친절하다면 그는 하늘 집에 적합하지 않다. 만일 그가 자기 뜻대로 하려거든 누구를 슬프게 하든지 천국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그는 천국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에 거할 것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형제를 향한 동정심으로 녹색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888.2.21.

나. 형제 우애를 기르는 기본 단계를 말해 보라. 마 6:12, 14, 15; 엡 4:32.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비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적용되도록 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기준이라고 주장 하신다(마 6:14, 15 인용). 얼마나 놀라운 계약인가!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적게 이해되고 있으며 유의되고 있는가. 가장 흔한 죄악들 중 하나이며, 가장 유해한 결과가 따르는 하나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의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감히 입술로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적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성서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70, 171.

3. 형제 우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함

가. 진정한 형제 우애의 넓이와 깊이를 설명하라. 롬 12:9, 10; 빌 2:3.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유발된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과, 세상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허식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바란다. 이 저속한 모조품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되게 이끌어 왔다. 그것은 범법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성실하게 보여 주는 대신에 그에게 동의함으로써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사이의 구분을 말살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행위는 진정한 우정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은 오직 육적 마음 속에 거한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죄악과의 조화를 느낄 수 없다. 그는 악을 미워하고,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나 우정을 희생하고서 선한 것에 집착한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즐겨 감수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71.

나. 흔히 형제 우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올무에서 어떻게 구출될 수 있는가? 눅 6:45; 히 12:15.

“암시가 던져지고 서로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 던져지지만, 동시에 이런 암시와 비평을 던지는 바로 그들은 자신의 실패들에 대하여는 눈이 멀어 있다.” -교회증언 4권, 222.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보다는 말하는 자에게 훨씬 더 중하게 내리는 이중의 저주이다. 분열과 분쟁의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의 심령에서 치명적 열매를 거둔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악을 추측하는 자는 얼마나 불행한가! ...

험담의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쾌활은 온갖 형태의 불순을 포함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되어야 한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한다.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그대의 말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주시하고 있다. 그대가 그의 간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회증언 5권, 177.

4. 제자 됨의 확실한 증거

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성경 원칙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가?
 딤후 3:2.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 13:35.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중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생각과 상상을 조종하게 하여 질투가 생기고 의심과 시기가 생기게 한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과 우정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이 불신을 당하고 동기가 잘못 판단되었음을 알게 된다. 거짓 형제는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의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을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다. 생각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결함은 무자비하게 말해진다. 형제의 성격은 어둡고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룩한 신뢰의 배반이 있다. 형제를 신뢰하고 말한 내용이 반복되고 잘못 전달된다. 그리고 모든 말, 모든 행동은 아무리 순수하고 선의적일지라도 우호적인 교제나 형제적 신뢰를 조금도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상하고 명예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냉정하고 질투적인 비판으로 면밀히 조사된다. 마음은 자비와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단이 희생자에게 나타내는 차갑고 비웃음과 경멸의 정신이 드러난다.

세상의 구주께서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셨으며 우리도 동일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친구나 형제를 신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때가 왔다.

그리스도 시대에 정탐꾼들이 그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우리의 길에 있다. 만일 사단이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고용하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로 행동할 수 있다면 그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무지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리뷰 앤 헤랄드, 1884.6.3.

“어떤 형제에게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고 동정이 충만한 마음으로, 또한 자비심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잘못을 알려 주고 그 문제를 그 사람과 주님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그대는 할 바의 무를 다하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형제를 고삐로 제어하고, 정죄하고, 정죄의 선고 아래 묶어 두는 것 등을 너무도 경하게 해 왔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식을 따른 열성이 아니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 같으면,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의 간증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될 것이며, 진리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속에 말해 줄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65.

5. 끝까지 온 힘을 다함

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어떤 호소가 있는가? 히 13:1.

“우리의 길이 우리 친구들에 의해 올바른 것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하는 사랑과 선한 의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둬나지 않은 심령에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반대를 당할 때 불쾌해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대는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다. 그대는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자아를 혼란시킨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을 계발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가장 주된 관심은 위협에 처해 있다. 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참된 거룩함과 자아 희생의 정신이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가장 깊이 숨겨진 그 비밀을 읽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위해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과 다정함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와 같을 것이다.

어두움의 사슬에 묶여 있는, 단호함과 도덕적 능력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의 심령에 있는 시련을 그대는 거의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 힘써라. 필요한 자들을 돕고, 자아를 못 박고, 그대의 매일의 생애에서 진리의 원칙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대의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하라. 그 때에 그대는 전에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교회와 그대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133, 134.

“만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방문하고 실수한 자들을 위하여 꾸준하고 친절하게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본되시는 분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그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7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51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2. 나는 어떻게 마음속에 형제애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가?
3.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깊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4. 나는 어떻게 비난하는 영을 피하면서도 죄를 그 바른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가?
5. 내 생각에는 왜 약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최고의 목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4)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안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509.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154~157, 547~549.

첫째 날(일요일)

7월 21일

1. 선천적인 애정을 넘어서

가. 왜 사랑은 형제 우애 다음에야 언급되는가? 벰후 1:7[하단]; 롬 5:7, 8; 약 3:17.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소수의 좋아하는 이들만을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애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57.

나.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함과 무엇을 연관시키시는가? 마 5:43~48; 눅 6:36; 골 3:14.

“사람들은 우리 구주의 순결함과 도덕적 위엄에 경외감을 느꼈고, 동시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과 온화한 자비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분은 완전함의 화신이셨다.” -복음 교역자, 73[1892년].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시킬 때 평화와 안식이 그대에게 깃들 것이다. 그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행동의 숨은 동기가 구주께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3.

2. 하늘에서 주신 태도

가. 다른 사람에 대한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깊이를 설명해 보라. 시 101:2; 빌 2:1~4.

“조급하고 성내기 쉬운 감정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름으로써 가라앉고 진정될 것이다. 죄가 사유되었다는 자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열렬한 생투가 일어날 것이다. 알력이 사라질 것이다. 한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 비난하던 자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더욱 큰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73.

나. 위에서 설명한 태도가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가? 빌 2:5~8; 고전 2:16.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패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 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 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고(誣告)를 견디는 쪽이 훨씬 낫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다. 마음의 검비,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시149: 4).” -산상보훈, 16, 17.

3. 사랑: 진실 vs 거짓

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지하게 붙잡고 깊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사랑을 설명하라. 마 5:6; 고전 13:4~8.

“교회가 번영하려면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측에서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소중히 기르기 위하여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식물이 마음속에서 무성해지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사랑의 특성을 자신의 생애에서 계발시킬 것이다. 그는 오래 참음과 선행의 정신을 나타내고,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말과 행동에 나타난 이 품성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배격하지 않고 접근하기 어렵고, 냉랭하고,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귀중한 사랑의 식물을 가꾸는 사람은 정신에 있어서 자아 부정적이고,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자제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향을 전가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깊이 느낄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겸손한 요소이다. 그것은 자랑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사람을 결코 충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은 경솔한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만하고, 결점을 찾고, 전체적이 되도록 이끌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자만심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적합하든지 적합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든지 나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 깊은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적극적인 원칙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우리 앞에 항상 제시해 주고, 우리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해 준다. 사랑은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안락과 자아 방종을 구하도록 충동하지 않을 것이다. 것처럼 흔히 사랑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나타내는 존경이다.” -교회증언 5권, 123, 124.

나. 거짓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경고를 받는가? 약 2:19; 유 11~13.

“B 장로는 매우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다. 사랑에 관해 많은 말을 하였다. 믿음에 관해 그는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고 말했다. 화잇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축복은 조건에 따라 약속되었습니다. 요 15:7-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의 믿음의 이론은 양쪽 머리가 모두 나와 있는 밀가루 통처럼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은 매우 섬세하므로 성경진리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선물 2권, 46, 47.

4. 중요한 사항

가. 베드로의 사다리의 계단으로 나열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벵후 1:8.

“그대들 안에 그리스도인 덕성이 존재하도록, 그리고 충만하도록 하라. 그대의 구주께 그대 최선의 애정과 가장 거룩한 애정을 드리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분은 이보다 못한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허망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좋은 평판이나 나쁜 평판이 나를 막론하고 그대의 구주를 좇으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을 기쁨과 거룩한 명예로 여기라.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대의 나뉘지 않은 애정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실패할 것이요 마침내 ‘떠나가라’는 두려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중언 2권, 237.

나. 근심 많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흔히 무엇을 간과하는가? 아 2:15.

“그대들은 심한 걱정과 무거운 짐과 의무에 눌려 있다. 그러나 그대를 누르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그대가 져야 할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크다. 예수님이 그대들의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길을 비춰줄 빛이 끊임없이 필요하며, 그 거룩한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전하다. 그것은 세상이 작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양심적으로 유의하는 것인데, 그것이 생애의 큰 아름다움과 성공을 이루어 준다. 작은 구체 활동, 작은 친절의 말, 작은 극기의 행동, 작은 기회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 작은 재능을 부지런하게 계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든다. 만일 이 작은 것들을, 성실하게 유의하고 이 덕성들이 그대들에게 있어서 풍성해진다면, 그것들이 그대들을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게 해 줄 것이다. 그대들의 재물을 후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즐겨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대들의 모든 힘을 거리낌 없이 바치기를 요구하신다. 그대 자신들을 바치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 때문에 그대의 생애는 실수가 되어 왔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대들의 사업은 십 배나 더 어려워질 것이다. ...

하나님은 완전하고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며, 이것보다 부족한 것은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들의 위치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대들은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하다.” -교회중언 4권, 543, 544.

5. 위험한 전망증 = 눈 먼

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은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벧후 1:9; 계 2:4.

“진보의 사다리를 오르지 않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지 않는 사람은 ‘눈 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다리 위의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는다. 그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입장에 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은혜를 발휘하고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눈먼 상태와 무지, 방종과 죄의 상태에 있다. 그는 ‘멀리 볼 수 없는 자’ 그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고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부류는 세상적인 이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다리 위의 하나님으로부터 비취는 빛 가운데 사는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평화를 이루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으로 사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영적인 시력으로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 자원했지만, 침례 때 하나님께 한 모든 서약, 즉 영광과 영예와 불멸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저야 할 모든 엄숙한 의무를 잊어버렸다.” -원고모음 19권, 350, 351.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46

1. 나는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부당한 편애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가?
2.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사랑의 정신이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가?
3.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4. 나는 어떤 작은 사랑의 행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5. 왜 나는 사랑의 영역에서 여전히 부족한가? 그리고 이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세계 대총회 교육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성화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평생의 사업이며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의 이 중요한 부분이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난다.” -시대의 소망, 195.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고 죄와 죄인이 더 이상 없을 때에도 교육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성장할 수 있고, 성인은 계속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육 기관은 기본을 가르치는 것에서 세속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센터로 옮겨갔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요청했다.

따라서 세계 대총회 교육부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 교육자들, 여러 연합회, 협회와 협력하여 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규모는 이용 가능한 금액보다 크다. 자료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저렴하게 만들려면 이 헌금에 대한 여러분의 관대한 기여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최고 품질의 자료를 준비하여 학교와 가정 학교에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현세에 있어서 유용한 인물과 영원한 하나님의 봉사사업을 위한 실력을 배양하게”(부모, 495)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계획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의 지원으로 우리는 우리 중 가장 어린 아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 기별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생산할 것이다.

헌물과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세계 대총회 교육부로부터



확고히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벧후 1:10, 킹제임스)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이 물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115.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9권, 186~188, 191~194.

첫째 날(일요일)

7월 28일

1. 근면함의 요구

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벧후 1:10. 왜 이것이 우리의 체험에 십자가를 포함하는가? 마 10:38.

“하나님께서서는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품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분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은 영광의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이 품성의 표준에 도달하려는 모든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은 안식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도로 선택되었다. 그대는 부지런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담의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구원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성화되도록 선택되었다. 만일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자 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지도로 선택되었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126.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상을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48.

2. 하나님과의 씨름

가. 우리가 품성의 결점을 극복하여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할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범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히 5:7, 8.

“도시가 정적에 싸이고 제자들은 잠을 청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셨다. 감람산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매일 당하는 악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그리고 내일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혼이 강화되고 다져지기를 구하는 거룩한 간구가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그분의 제자들이 자는 동안 밤새도록 그들의 거룩한 교사는 기도하고 계셨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분에게 밤이슬과 서리가 내렸다. 그분의 모본은 제자들을 위하여 주어졌다.

하늘의 왕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동안 자주 열렬한 기도를 하셨다. 그분은 항상 감람산으로 가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이 좋아하는 장소를 알고 자주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분은 밤의 적막한 때를 택하셨다. 그 때는 아무의 방해도 없는 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 그분 자신이 축복과 힘의 원천이셨다. 그분은 심지어 폭풍까지도 명령하셨으며 폭풍은 그분에게 순종하였다. 그분은 부패로 더러워지지 않으셨고, 죄를 모르셨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셨으며, 때로 강한 외침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며 인간에 공통적인 바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실패를 공감하고자 하셨다. 그분은 강한 탄원자이셨다.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연약성을 이해하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고뇌를 겪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교회증언 2권, 508, 509.

나. 이러한 유형의 강력한 기도 생활의 결과를 설명하라. 행 4:13.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제로 유지된 변함없는 신뢰의 일생이었으며, 하늘과 땅에 대한 그분의 봉사는 실패하거나 실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한낱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성에 하늘의 권능이 더해져 인성과 신성이 결합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교육, 80, 81.

3. 믿음을 견지함

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일에 끊임없이 근면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겔 33:13. 예를 들어보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그 집에서 그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불렸던 다윗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신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후세의 증거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때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죄인들을 만드시 별하실 것이다.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그들의 과거의 의는 그들을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영적선물 1권, 379.

“영혼이 구원된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받는 자에게 영생이니라. 그러나 성경은 한때 생명의 길을 알고 진리를 기뻐했던 사람들은 배도에 빠져 멸망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로 단호하고 매일의 회심이 필요하다.

한번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선택의 교리를 지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하시는 분명한 다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6권, 1114, 1115.

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겔 18:21; 고전 15:1, 2[상단].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실수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저희의 건망증으로 돌리면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저희의 정신이 강화되도록 수양해야 한다. 잊어버리는 것도 죄요, 태만히 하는 것도 죄이다. 그대가 만일 태만히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대는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되고 만다.” -실물교훈, 358, 359.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0.

4.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선택됨

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조건을 준수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벧 후 1:10[하단], 11.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대의 소망, 311.

나. 우리의 선택의 능력을 통한 은혜의 선택이 야곱과 에서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벧전 1:2[상단]; 롬 9:10~14; 11:4, 5.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택정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은 ‘그분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킹제임스역)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택정이다.” -부조와 선지자, 207, 208.

5. 승리자에게 매어 달림

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를 향하여 걷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빌 3:12~14.

나.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가? 빌 1:6; 유 24; 고전 1:30.

“우리는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며 그리스도의 키까지 점점 올라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신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이 층계의 계단을 이룬다.

영생이라는 무한히 비싼 보배를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파에 떠내려 갈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다. 끈기 있는 노력이 없이는 아무도 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없다. 정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한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아서는 안 된다. 계속 위를 응시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경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단은 그대의 영혼을 놓고 생명의 게임을 하고 있다. 그의 편으로 한 치라도 기울이지 말라.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고, 그에게 기대며, 세상과 그 어리석음과 그 매혹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늘의 존재들과 영적 협력을 이룩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147, 14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9

1. 십자가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나의 기도생활의 열정이 구원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사람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4. 잘못된 야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에서는 거절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5.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약속을 암송하라.

현대 진리로 강화됨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벧후 1:12).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현대 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호위되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 증언 2권, 355.

참조할 연구교재: 초기문집, 61~71.

첫째 날(일요일)

8월 4일

1. 지금 여기에서 성장하기

가.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벧후 1:12~15.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143, 144.

나. 하늘로부터의 빛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히 5:12~14; 6:1~3.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6.

2. 책임

가. 하늘에서 보낸 더 많은 빛을 받을 때 우리의 행동 방침을 바꿔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 약 4:17; 잠 4:18; 마 6:23.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에 비례하여 요구하신다. 그분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빛을 받음으로 인해 책임이 생긴 존재들은 그들에게 비치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들이 이 일에 실패하면, 그들의 빛은 어둠이 되며, 그들의 받을 풍성한 빛의 정도에 따라 어둠은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축적된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는 데 태만하였다. 이 이유로 인하여 그들은 큰 영적 연약에 빠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들의 영혼은 빛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태만하거나 거절한 것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빛을 얻지 못하여 거절하지 못한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빛, 귀한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빛에 의해 구원받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빛에 맞게 살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요청하신다. 필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개인적인 일이다. 이 일은 남을 위해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종교적인 지식이 축적되었다면 이것은 이에 따르는 의무를 증가시킨 것이다. 큰 빛이 교회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 빛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 그들이 눈멀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빛을 보았고 진리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여러 해 동안 지식과 참 경건의 생활에서 진보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영적 난장이다. 그들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에 애굽의 흑암과 속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경건과 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깨어날 것인가?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든 잘못을 버리고, 은밀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괴롭게 할 것인가? 그들이 큰 검비로 모든 행위의 동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시며 감추인 것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이 일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온전히 바치기를 요구하신다. 목사들과 교인들은 새로운 회심,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아니요 사망을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교회증언 2권, 123, 124.

3. 현대 진리

가. 우리가 산만해져서는 안 되는 연구의 초점이 되는 주제의 예를 들어 보라. 단 7:9, 10; 8:14; 시 119:33~35.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 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 주는 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 초기문집, 63.

나. 약 180년 동안(세계 역사의 전체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현대 진리의 중요한 측면은 무엇이었는가? 계 14:6~13.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영감의 말씀에 따라 선포되었다. 하나의 기둥이나 편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 권위도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이 기별의 위치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 구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된 복음이다. 신약성경은 실체이다. 하나는 다른 것만큼이나 필수적이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교훈을 제시하며, 이 교훈은 어떤 특별한 점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지금 우리는 세 번째 기별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기별 모두 아직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펜과 음성으로 우리는 선포의 순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는 예언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없이는 세 번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기별을 출판물과 담화를 통해 세상에 전해야 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적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어야 한다.” - 저자와 편집자에게 보내는 권면, 26, 27.

4. 성장에 대한 열망

가. 다른 사람들이 현대 진리를 거부할 때에도 현대 진리가 펼쳐지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설명하라. 렘 29:13; 마 18:3; 요 7:17.

“그대가 기꺼이 인도함을 받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대의 이해력이 성화되며, 그대의 의지와 선입견이 굴복될 때, 그러한 빛은 그대의 마음에 넓게 비추어져서 성경을 조명해 주고, 그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현대 진리를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총체로 연결되어 황금 고리로서 나타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448.

나. 부주의로 인해 현대 진리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리고 치료법은 무엇인가? 사 56:9, 10; 고전 14:8; 계 3:17~19.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영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맥 없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교회증언 6권, 60.

“우리는 확실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수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관심사에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한다. 우리는 단호한 개혁을 해야 한다. 음성은 이렇게 말했다: 파수꾼들은 깨어나 나팔 소리를 내야 한다. 아침이 온다; 그리고 밤도 오리다. 깨어나라, 나의 파수꾼들이여. 이제 진실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야 할 목소리는 조용하다. 영혼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으며, 목사들과 의사들과 교사들은 잠들어 있다. 파수꾼들을 깨우라!” -태평양 연합회 기록, 1908.2.20.

“참된 증인은 그대가 진정으로 번영의 훌륭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대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선포한다. 교역자들이 이론적인 주제만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실제적인 주제들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실제적 교훈을 연구하고 그 동일한 것을 자신과 백성들에게 밀접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책망의 증언을 하셨으므로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것인가? 오, 아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교회증언 3권, 257, 258.

5. 영광으로 환하여진 땅

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현대 진리가 어떻게 확장되고 가속화되는지 설명하라. 계 18:1~5.

“[계시록 18:1, 2, 4 인용됨]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계 14:8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3.

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 진리의 기별을 불편하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고전 2:12~16.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품성적 결합을 고백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할 것이며, 이러한 교제는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음으로 그는 정욕을 인하여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피하게 될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83.

“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대는 ‘내가 거룩하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대에 대해 말씀하시게 하라. 이런 자랑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을 그의 책에 기록하게 하라. 그리하면 상급의 날에 그 기록이 천사들과 사람 앞에 이를 나 타낼 것이다.” -영문시조, 1887.12.22.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32

1.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2. 나는 왜 현대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현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더 밝은 빛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나의 영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나는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예언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벧후 1:19)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므로 전설에 유의하지 않고 ‘확실한 예언’에 유의한다는 신성한 확신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진리의 충분한 빛의 광채 안에서 살고 있다.” -교회증언 4권, 592.

참조할 연구교재: 가려뽑은 기별 1권, 15~23.

첫째 날(일요일)

8월 11일

1. 믿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

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마 17:1~7.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광경을 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리저리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방황하신 인내의 교사,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시대의 소망, 422.

“온 밤을 산에서 새우고 해가 돋을 무렵 예수와 제자들은 평지로 내려왔다. 생각에 골똥한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잠잠하였다. 베드로까지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였다.” -시대의 소망, 426.

나. 베드로는 무엇을 확신있게 선언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의 용기 있는 모범을 따라야 하는가? 벧후 1:16~18.

“진리 가운데는 거짓이 없다. 만일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원수의 세력에 합세하게 되는 것이다. ...

온갖 악의 형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아침, 뇌물, 유인 및 놀라운 승진에 대한 약속 등이 주도면밀하게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악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의 방책(防柵)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194.

2. 예언의 영향

가. 혼란이 가중될 때,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실망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눅 24:15~21, 27, 32; 벰후 1:19.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 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9.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 앞으로 임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꾸며낸 이야기만 듣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들이 흑암에 비추는 빛으로 생각하고 그 빛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잘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를 대조할 수 있으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가르칠 자질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632.

나. 오늘날 매우 관련성이 높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경고를 말해보라. 딤후 6:20, 21.

“비록 과학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바로 그 이교의 우상숭배의 정신은 오늘날 매우 널리 퍼져 있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신속히 줄어들고 있는 슬픈 증거가 날마다 더해가는가 하면 그 대신에 미신과 사단의 마법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교회증언 5권, 192.

3. 우리 영혼의 닻

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기둥이자 닻인 진정한 예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암 3:7; 벧후 1:20, 21.

“성경의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인간의 추론과 인간의 추측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약화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신비주의의 구름에 둘러 가리워지고 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암초에 걸린 배처럼 아무것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두드러진 징조들 중의 하나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5.

“기발한 자가 되려고 하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들의 지혜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앞서서 놀라운 것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적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들 자신이 얼마나 뒤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상들을 발견한다.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리워진 신비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말버둥치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을 구해 낼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이 빠진 진흙 수렁에서 기정맥어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성경의 모순들을 저들 스스로 시정맥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말이다. ‘주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이다’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는 등의 제의로써 성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중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베끼는 자나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음직하고 편협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이나 우연의 일치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저들의 미약한 정신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통찰할 수 없으므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신비들을 쉽사리 곡해하게 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6.

“주님께서서는 퇴폐한 감각과 둔하고 세속적인 식별력을 가진 인간들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불완전한 언어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겸비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타락한 인류들이 현재 처하여 있는 위치에서 만나셨다. 성경은 말씀의 단순성에 나타난 완전성을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하여 답변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무한대에 속하는 사상이 유한한 인간의 사상 전달의 수단으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경의 표현들이 과장되기는커녕 오히려 장엄한 사상 앞에 인간의 강한 표현들이 압도당하였으며 필자들이 하는 진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2.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될 때에 저들은 신령하고 거룩한 영역을 과감하게 밟는 격이 되는데 오히려 저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저희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감추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영감적인 것으로 선택하고 또 다른 부분은 영감되지 않은 것처럼 불신하는 태도로서 성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어떤 인간도 세우지 않으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

4.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가.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과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벰후 2:1~3; 딤편 4:1, 2; 신 6:24, 25.

“이 마지막 날보다 인간의 비뚤어진 논쟁으로 인해 진리가 왜곡되고, 얕보이고, 쇠퇴되는 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 때는 결코 없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한 신탁으로 대표하는 이질적인 이단 집단을 가지고 들어왔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고 새로운 것에 매료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상의 성격을 분별하는 경험이 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중대한 결과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것을 진리로 만들지 않는다. ...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그분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자신을 크게 높이고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정신을 갖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성경주석[화잇주석] 6권, 1064, 1065.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이다.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근면과 절약과 진실과 사람 상호간의 공정한 관계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여호와와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8권, 199.

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성경의 예를 인용하는가? 벰후 2:4~8.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3.

5. 우리의 인도자를 소중히 여김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구원은 무엇인가? 벧후 2:9[상단]; 고전 10:13; 시 50:15.

“하나님께서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 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패배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막 14:38)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 줄 것이다. ...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126~129.

“유혹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으시되, 사람이 견디도록 결코 요구받을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의 성공적인 저항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뚜렷한 본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자기 과신이나 독선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유혹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단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것만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거짓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타는 능력 그대로 그의 얼굴에 던져질 때 떨고 전율한다.” -교회증언 5권, 426.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23

1.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2.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가?
4. 영감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는가?
5.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부패한 시대의 순결함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딤후 1:15)

“그들이 항상 태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며 방정히 한다면 많은 유혹의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다.” -재림 신도의 가정, 331.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137~148, 191~199.

첫째 날(일요일)

8월 18일

1. 우리의 태도를 살펴봄

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의 시기심을 어떻게 처벌하셨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경고가 되는가? 민 12:1, 2, 6~10; 약 4:11; 벨후 2:9[하단], 10.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이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의 하나이다. 현인은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잠 27:4)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약 3:16).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약 4:11). 그러므로 한 재판관 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전 4:5)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재판 자직을 취하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대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솔하게 비난하기를 삼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386.

2. 오만한 추측

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욕을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벰후 2:11~13.

“매혹시키는 사단의 능력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목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 은밀한 방종이 하나의 미덕처럼 기만당한 이 영혼들에 의하여 자행된다. 이것이 일종의 마법이다. 갈라디아인들에게 한 사도의 질문은 다시 반복해 볼 만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피더냐’(갈 3:1). 이단과 방종에는 언제나 피는 힘이 있다. 마음이 너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이지적(理智的)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상은 마음이 순결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있다. 영적 시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껏 흠이 없던 도덕적인 사람들이, 빛의 사자로 공언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매혹시키는 꾀변 때문에 혼란해진다. 이런 대리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이와 같은 미혹이다. 만일 그들이 떳떳하게 나타나서 공공연하게 행세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동정을 얻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신임을 얻기 위하여 활동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자 시도함으로써 영혼들을 바른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간교한 그들의 사업에 착수한다.” - 교회증언 5권, 142, 143.

나. 그러한 위험에 직면할 경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사 51:7, 8; 딤후 1:15.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에, 나는 경고의 음성을 높일 필요를 깨닫는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 14:38).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악하게도 사단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나왔노라고 공언하며 그 흑암의 일에서 떠났노라고 하는 한 백성에게 내가 어떤 경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불순한 사상, 부정(不淨)한 상상, 저속한 정욕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에 맺힌 열매를 미워하신다. 사단이 즐거워하는 동안,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가증하게 바라본다. 아, 그런 남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하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외관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리고 누가 저질렀던지 간에 죄를 그와 같이 간주해야 한다.” - 교회증언 5권, 146.

3. 더 큰 빛에 대한 책임

가. 영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려는 악탈자들의 운명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벧후 2:14; 딤후 3:5~9.

“방종에 따라 야기되는 불행과 타락은 헤아릴 수 없다. 세상은 그 거민들 때문에 더럽혀진다. 그들은 죄악의 양을 거의 채웠다. 그러나 가장 심한 형벌을 가져올 것은 경건의 가면 아래 자행되는 죄악이다. 세상의 구속주는 아무리 큰 범죄일지라도 진정한 회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다. 이 부류의 사람들보다 공공연한 죄인에게 훨씬 더 큰 희망이 있다.

‘이러므로(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1, 12). 이런 사람과 그에게 기만당한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에서 쾌락을 얻고 있다. 방종과 간음 가운데 하나님께 불쾌한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보다 더 강한 미혹이 그들을 엄습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이런 죄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있다.” -교회증언 5권, 144, 145.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는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대들이 불결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일을 즉시 후회하고 불순한 암시를 토로하는 자들과의 교체를 버리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가장 강한 증오심으로 더럽게 하는 이 죄들을 혐오하라.…”

이와 같이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그대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유혹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공언할지라도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사단이다.” -교회증언 5권, 146.

나. 더 큰 빛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위험을 말해 보라. 롬 2:21~23.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것이 이 백성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면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영원한 진리의 고상한 토대 위에서 있다고 공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음란과 간음을 행하면, 그 죄악은 내가 그 이름을 언급한 바 하나님의 법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보다 열 배나 더 중하다.” -교회증언 2권, 450, 451.

4. 우리가 사랑하는 죄를 버릴 때임

가. 우리가 완고하게 어떤 최악된 습관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와 비교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벵후 2:15, 16; 민 22:9, 12, 21, 27, 28; 31:16.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엄숙한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특질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 죄는 곧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모든 다른 고상한 능력을 북종케 한다. 발람은 불의의 삶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은 서열에 두신 탐심의 죄를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못하였다. 사단은 이 한 결점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품성을 망치게 하였다.” -성경주석[화잇주석] 1권, 1116.

나. 더 큰 빛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롬 2:21~23.

“자화자찬하는 강신술사들은 큰 자유를 주장하며 부드럽고 화려한 말로 좁은 길이나 험잡한 길보다는 쾌락과 젖된 방종의 넓은 길을 택하도록 방심하는 영혼들을 매혹시키며 속이기 위하여 애쓴다. 강신술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멩으로 부르며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노예적인 두려운 생애를 산다고 말한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솔깃한 이야기로 그들의 자유를 자랑하며 그들의 위험스런 이론을 의의 겉옷으로 덮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가장 반역적인 죄가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만든다.

그들은 죄인 앞에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넓은 문을 죄인 앞에 열어놓으며 하나님의 율법, 특히 일곱째 계명을 범하도록 한다. 이 크게 증대되는 공허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자유를 의기양양하게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반역하면서 자유를 즐기리라고 약속한다. 이런 기만을 당한 영혼들은 그들 자신을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며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선택한 동일한 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된다. 이 미혹된 영혼들은 악마의 의지에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 그들은 흑암의 세력과 동맹을 맺었으며 악귀들의 뜻을 거역할 힘이 없다.” - 리뷰 앤 헤랄드, 1875.4.15.

5. 책망으로 축복을 받음

가. 우리가 가진 선택을 설명하라. 벨후 2:19; 롬 6:16, 19; 잠 10:17.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 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룩한 감화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받았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사도행적, 557, 55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14

1. 미리암은 어떻게 나병이라는 치욕을 면할 수 있었는가?
2.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베드로의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있게 하는가?
3.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면으로 독특한가?
4. 발람의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5. 잘못된 요한과 잘못된 유다의 태도 차이를 설명하라.

하늘의 빛을 소중히 여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천사는 다시 말했다. ‘빛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빛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할 빛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1권, 11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2권, 695~711.

첫째 날(일요일)

8월 25일

1. 태도 문제들

가.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벵후 2:20.

“교회 중에서 일어나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신실하다고 여김을 받는 이 거짓 교사들을 사도는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그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고 선언하였다.” -사도행적, 535.

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인내심을 시험할 때, 시대를 초월한 어떤 말이 우리가 성숙한 관점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전 7:8.

“나는 많은 사람들이 패권을 쥐기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경멸과 멸시에 대하여 방심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 거칠고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

그대들이 첫째가 되고자 그처럼 열렬하게 애쓰고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음의 교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곳에서 실패하게 할 것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전 7:8).” -교회증언 5권, 50.

2. 몇 가지 흥미로운 실례

가. 베드로는 우리를 일깨우는 것을 지칭하여 무엇이라고 했는가? 잠 26:11; 벧후 2:20~22.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참으시나, 조금만 더 오래 참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찌끼를 마셔야 한다. ... 누가 주님 편에 속해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지 미구에 알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위치를 양심적으로 차지하고, 세상의 유행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아 부정의 생애를 본받을 도덕적 용기가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모본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교회중언 1권, 287.

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겸손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눅 11:24~26.

“수리된 집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내어 쫓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는 집이 비고, 소제가 되고, 치장된 것을 알았다. 자기의 의만이 그 곳에 살고 있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기의 의는 하나의 저주이며, 인간의 장식에 불과하다.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이용한다. 자기 찬양과 자기 아침의 말로 영혼을 장식하는 사람은 처음보다 더욱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을 속인다. 그들은 자기의 의의 기초 위에다 집을 짓고 있다.”

회중의 기도는 여러 차례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만, 독선적인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주의 의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과시와 그들의 화려한 처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악한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들어와서 속임수를 돕기 위해 영혼 속에 자리를 잡는다. 사도는 ‘만일 저희가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엮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라고 기록했다. 의의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성경주석[화이트주석] 5권, 1093.

3.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

가. 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라”고 지시받았는가? 골 1:21~23.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할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좇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4.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름다운 균형을 설명하라. 롬 3:24~26; 히 6:4~6; 10:26, 27.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시대의 소망, 429.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에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는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이로소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保有)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5, 366.

4. 빛에 따라 생활함

가.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풍부한 빛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약 4:17.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장담하기가 일쑤다. 그들은 신체의 건강에 관하여 받은 바 모든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모든 습관은 하나님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육체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기관과 모든 근육이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각별히 지켜져야 한다.” -교회증언 6권, 372.

나. 개혁이 필요한 현대 진리의 여러 측면에서(건강은 단지 한 예일 뿐임)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의 결과는 얼마나 광범위한가? 롬 14:21; 렘 13:20.

“건강 개혁의 주제가 교회들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빛은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건강을 파괴하는 방종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예비하려고 주어진 기별의 영향에 반작용하였다.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의 분명한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자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한번도 회심해 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교회증언 6권, 370, 371.

다. 오늘날 하늘에서 보내신 빛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호소가 울려 퍼지고 있는가? 렘 3:12, 13; 시 32:5.

5. 앞으로 나아가기

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적절한 호소 몇 가지를 설명하라. 히 5:13, 14; 6:1; 빌 2:14, 15.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 사업에 대한 재회심(再回心)과 재헌신(再獻身)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의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개최하는 집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사업을 것처럼 약하고 무력하게 만든 불신의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우리 속으로 흡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빛과 은혜를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뒤로 물러간 자들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고백과 회개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해야 한다. 신령한 능력의 홍수가 그것을 받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교회증언 8권, 46[저자의 강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라. 현재의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그대의 생애가 실패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게 하라. 그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에서 일하되, 그것이 비록 선교지의 위험과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라.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간원하노니 곤란과 자아 희생을 불평하지 말라. 왈덴스인들을 보라.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저들이 무엇을 피하였는지 보라. 우리의 보상을 이생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을 경주의 마지막에 있을 상에 확고히 고정시키고 일하여야 한다. 나침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의무에 충실한 남녀,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거나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키지 아니한 채 일할 남녀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문서전도 봉사, 68, 69.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9:04

1. 누군가가 나를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가?
2. 이 마지막 날에 독선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3.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가?
4.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잘 반영하려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 행동이 필요한가?
5.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앙골라 연합회 본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 북동 앙골라 합회는 북부 관자, 우이지 및 말란제의 세 지역을 섬기기 위해 2015년 총회에 의해 조직되었다. 후자는 북부 중앙 앙골라 필드의 본부 내부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면적은 181,110km²이고 추정 인구는 3,550,774명이다.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은 1978년 점진적인 시작으로 이 지역에 왔다. 그러나 199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사역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기별은 중단되지 않았다.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현대 진리의 기별이 이 지역 인근 여러 곳에 전해졌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앙골라 연합회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도서관, 회의를 위한 강당이 있는 건물이다.

접근성이 좋은 교외지역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사역을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는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교회의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옛날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 그분께서 그 위에 승인하신다는 인을 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사도행적, 96.

구원의 기별은 모든 땅에 전해져야 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4)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앙골라의 이 광대한 영토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계획에 여러분의 헌금을 관대하게 기부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바란다.

-앙골라 북동 연합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장함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벧후 3:1)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늘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기억의 전당에 걸어 놓아야 한다. 오늘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그림을 걸겠는가?”-리뷰 앤 헤랄드, 1889.3.26.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5권, 671~691.

첫째 날(일요일)

9월 1일

1. 기억의 전당에 호소함

가.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 기억의 힘에 호소하는가? 벧후 3:1.

“사람이 하늘 왕께서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경륜은 광대하게 될 것이며, 갈바리를 회상하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을 일깨울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궁의 정신이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구속의 위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보혈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게 보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물도 한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넉넉하지 않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지은 영혼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가가졌던 사랑을 그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다.”-교회증언 2권, 212.

“오! 만일 그릇 지향된 힘들이 한 큰 목적 - 이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전망을 향하여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억의 전당에 어떤 기념품들이 전시될 것이 아닌가! ... 그리하면 세속적인 대망자들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 진지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보화를 쌓기 위해, 우리의 습관을 지속하는 원칙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우리의 높은 부르심, 188.

2. 우리의 기억 속에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

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벧후 3:2; 시 119:11.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사 59:19, 킹제임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 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9, 600.

나. 우리의 정신을 성경의 역사와 가르침에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예를 들어 보라. 눅 1:67~70; 행 3:20, 21.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 되고 가장 포괄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꿰뚫어 보려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 준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다.” -교육, 173.

“내 마음은 구약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제로 부담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일상 생활에 그렇게 적은 성경 진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강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원수의 모든 능력보다 강하시다.” -성경 훈련 학교, 1903.6.1.

3. 예언적 징조가 성취됨

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의 믿음을 뒤흔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벵후 3:3.

“일반적인 청소년 교육 방식은 참교육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교과서에 실린 문제에는 불신앙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스럽거나 심지어 반대할 만한 빛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의 마음은 사단의 제안에 익숙해지고, 한때 품었던 의심은 그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사실이 되며, 과학적 연구는 그 발견이 해석되고 왜곡되는 방식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인간은 유한한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하는 일을 스스로 맡게 되며, 유한한 측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선고가 선고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과학의 기록 앞에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 그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소위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의 발견이 사실인지에 관해 자신들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도 성경 해석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말씀을 다룰 때 주저함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 사단은 마음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통하여 궤변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회의주의의 안개 속에 빠지게 하였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28, 329.

나.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날 바울의 어떤 권고가 적용되는가? 딤후 6:20.

“자연의 불변성이 널리 강조되어 왔으며, 회의적인 이론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의 분위기를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 채택되었다. 악으로 향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구약과 신약의 기록과 역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들은 오류에 중독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모든 기회를 지켜보았다. 자연은 자연의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고 믿음의 단순성은 파괴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회의론에 휩싸여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앙의 바위에 부딪히게 된다.” -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329, 330.

4. 표적이 된 영감

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 외에도 사단의 악한 공격의 초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 12:17; 19:10.

“증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들, 우리 입장의 기둥들에 관하여 의심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이,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한 때 믿어 온 증언들이 의심을 받고 포기될 때, 사단은 그 속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공개적인 반역, 치료가 불가능하고 멸망으로 종언을 고하는 반역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일 때까지 그의 노력을 배가한다.”
-교회증언 4권, 211.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잠 29:18, 킹제임스) 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사단은 오류로 이끌기 위하여 거짓된 계시들을 침투시킬 것이며 거짓 것과 참 것을 혼합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여 계시의 성격을 띤 것이면 무엇이든지 광신주의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296.

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종종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3:19, 20.

“나는 그대들의 위협을 안다. 만일 그대들이 증언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며 의심하는 입장을 취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해왔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몇 사람이나 그 경고에 유의할 것인가? 그대들이 이제 그 증언들을 붙들 때, 그대들의 길과 반대되는 것이 주어져서 그대들의 잘못을 교정해 준다면, 그대들은 어떤 부분이나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상 그대들이 받아들이기를 가장 꺼릴 때 그 부분이 바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협력하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떨었는가?” -교회증언 5권, 98.

5. 오늘날을 위한 기별을 소중히 여김

가. 특히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증언을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 29:18[상단]; 호 12:13; 대하 20:20[하단].

“하나님께서서는 수년 전에 전하였던 확실한 증언을 다시 회복하고 또 아울러 영적 생애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힘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다. 그러나, 그러한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왕의 왕께서 행차하실 대로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 우리에게서는 오순절에 내렸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어 온전히 이길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앞에는 위기가 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모두 깨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앞길에는 원수가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현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 생애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큰 기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또 그분은 교회에 보내는 증언들과, 우리의 현재의 의무와 현재의 입장을 명백히 깨닫게 하는 여러 서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긴다면 장차 무엇이라 핑계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간청하노니, 결코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용납하지 말 것이다. 또, 거룩하게 하는 진리 대신 인간의 추리를 신뢰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의 불을 붙이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영원한 진리의 교단에 굳게 서야 할 사람들이 그릇된 확설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한 기본 원칙을 굳게 붙들고 있기를 요구하신다.” -복음 교역자, 307, 30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53

1. 더 나은 기억으로 대체되어야 할 기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큰 시련에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가?
3. 내 교육의 어떤 측면이 내 신앙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4. 영혼의 원수는 왜 증언들을 불신하게 하려고 결심하는가?
5. 왜 나는 그것들의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감사를 바쳐야 하는가?

목적에 맞는 추가 시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우리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 거문고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서고, 무궁한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기다리던 은혜의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485.

참조할 연구교재: 교회증언 2권, 183~199.

첫째 날(일요일)

9월 8일

1.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가. 기롱하는 자들은 저들의 의심에 대한 변명으로 종종 무엇을 인용하며, 이러한 태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벧후 3:4; 사 56:12.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꽉 잡아서 우리는 눈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땅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열성과 진지함으로 다른 일들에 종사하느라 분주하다. 하나님은 망각되었다. 그리고 하늘 보화는 소중히 취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지 않는다. 세상 애착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갇아 먹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불안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뢰가 너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은 곤핍을 당할까 겁이 나서 걱정하며, 온갖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일한다. 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참여하거나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자신을 돌보는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돌보실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도록, 깨어 기다리라는 명령을 부여받은 백성들은 세상 애착에 무섭게 빠져 있다.” -교회증언 2권, 195, 196.

2. 결국, 아니면 곧?

가. 심지어 재림교회 신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웃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설명하라. 마 24:48~51; 잠 26:20~22; 롬 1:29~32.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견해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동과 말로써 또는 마음속으로 주의 오심이 지체되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리라는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외람되게 하고 부주의하게 하며 지체하도록 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세상 정욕과 부패된 사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종이 주객과 같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세상과 연합하고 있다. 그는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저희 주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며 정죄한다.” -시대의 소망, 634, 635.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조될 수 있는가? 골 3:1~4.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잡다한 일에 쏠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 보화의 영광스런 신비를 향해 계속 치달아야 하고 하늘 성소로부터 나오는 귀하고 거룩한 빛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이듯 우리의 마음에서도 빛나도록 해야 한다. 기롱하는 자들은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실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우리와 같이 살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이익을 얻고,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답한다. ‘우리는 깨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재리의 유혹에서부터 돌이켜 그들은 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바라봄으로 강해진다. 그들은 게으름과 이기심과 안락을 사랑하는 정신을 극복한다. 고난의 불이 당겨질 때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진다. 때때로 그들은 슬퍼하고, 그리하여 믿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정신을 집중한다. 공포와 의심을 극복한다.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대적들에게 말한다. ‘나는 깨어 기다리노라. 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노라. 나는 환난과 고난과 곤핍 중에서라도 기뻐하리라.’” -교회증언 2권, 194, 195.

3. 자연적 요소를 이용한 심판

가. 세계사에서 흔히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창 6:5~8; 7:23; 벨후 3:5, 6.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 곧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과 의회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상상이 부패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는 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서는 이 본보기가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에게 해로울 것임을 아시고 그 문제를 직접 다루셨다. 백이십 년 동안 그분은 그분의 종 노아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비웃는 데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은혜의 기회를 이용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한 심판에 대한 그의 특별한 진지함과 강렬한 느낌 때문에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과학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노아의 말씀을 두고 축제를 열었으며, 그를 미친 광신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인내는 고갈되었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1권, 1090.

나. 이 지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벨후 3:7; 시 11:6; 59:13.

“땅의 내부는 주님의 무기고였으며, 그곳에서 그분은 옛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무기를 꺼내셨다. 땅속의 물이 솟아나서 하늘의 물과 합쳐져서 멸망시키는 일을 이루려 하셨다. 대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땅속에 감추어두신 물과 불을 둘 다 사용하여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영적선물 3권, 82.

“거짓의 아버지의 모든 일은 하늘의 법령집에 기록되었으니 사단을 섬기는 일에 저들의 몸을 빌려 교훈과 실천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은 저들의 행위대로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의 불로 뿌리와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배교의 대장군인 사단은 뿌리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의 일꾼들은 가지들이다.” -성경주석[화이트주석] 4권, 1184.

4. 위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영원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창조주의 무한한 범위는 어떻게 요약되는가? 시 90:4; 벧후 3:8.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밭붙일 만큼’(행 7:5)도 땅을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를 위하여 매장지를 필요로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유대 백성의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갈 3:16)이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벧후 3:8) 까닭이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녕 옹하리라’(합 2:3)” -부조와 선지자, 169, 170.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벧후 3:9; 나 1:3.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에게 애소(哀訴)하는 동안 공의는 오랫동안 기다린다. ...

세상은 대담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 알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시 73:11)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압박과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선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한계선을 거의 넘어서려 하고 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옹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며 불의의 증강을 막기 위하여 간섭하실 것이다.” -실물교훈, 177, 178.

5. 더 깊은 회개를 위한 기회

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매우 감사할 수 있는가? 시 86:12~15.

“주님께서서는 즐겨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축복하고자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까지 순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모든 교인은 태워 버려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결해지기 위하여 풀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485.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은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그대들의 희망을 걸지 말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에 욕이 돌아갈 말은 전혀 하지 말라. 그대들의 은밀한 죄는 그대들의 하나님께만 고백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처리하는 법을 완전히 아시는 분에게 그대들의 갈등을 알려 드러라. 만일 그대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에게 그대들의 죄를 인정하고 변상을 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라. 그리고 축복을 구하라. 그대들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들의 모든 약점들을 고쳐 달라고 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놓으라. 그 일을 철저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그대들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라. 만일 그대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분께 서서는 그대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자유에 대한 감미로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대들을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대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들의 동료 인간들은 그대들을 죄에서 놓아 주거나 그대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대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시다. 그분은 그대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그대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연합함을 채홀’(히 4:15) 하셨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러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시므로 우리에게 있는 공로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반역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분 자신의 무한한 자비를 보신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욘 4:2; 벴후 3:9).” -교회증언 5권, 648, 649.

여섯째 날(금요일)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43

1. 세상의 어떤 면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2. 영적으로 말해서, 동료 종들을 때리는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3. 다가오는 불 심판에 대해 예리한 인식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상속 재산을 설명하라(갈 3:29).
5. 이 짧은 추가된 시간을 왜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벧후 3:11)

“이기적인 욕망과 본능을 부인함으로, 가치 없는 일시적인 것과 귀중하고 영구적인 것을 바꾸어 받는 것이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굉장한 이익이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다.” -교육, 296.

참조할 연구교재: 초기문집, 52~54; 각 시대의 대쟁투, 662~673.

첫째 날(일요일)

9월 15일

1. 피할 수 없는, 끝 수 없는

가. 최종 집행 판결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벧후 3:10.

“새 하늘과 새 땅(계 21:1; 사 65:17; 벧후 3:13)은 죽은 악인들이 살아나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000년이 끝나고 죽은 악인들이 살아나는 바로 그때에 사단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에게서 거룩한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들을 속였다. 악인들은 모두 ‘성도들의 진영’ 주위로 행진했고, 사단이 그들의 선두에 있었다. 그들이 그 성을 빼앗으려 할 준비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보좌에서 그 성 위에 삼키는 불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그들 위에 내려와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살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자녀가 가지인 것처럼 사단이 ‘뿌리’이고 그의 자녀가 ‘가지’임을 보았다. 곡과 마곡의 최후의 멸망에서 모든 악한자의 대장은 불타서 없어지고 ‘뿌리와 가지’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적은 양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 11, 12.

2. 땅이 정결케 됨

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악의 최종적인 멸망과 땅의 정결을 어떻게 예견했는가? 사 34:8~10; 겔 28:16~19.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의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 버린다(말 4:1; 벧후 3:10 참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 못처럼 된다. 이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와 그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사 34:8)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잠 11:31 참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 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 하여 고통을 받는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와 그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2, 673.

나.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라. 계 20:7~10, 15; 21:1, 2.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을 정결케 하실 때, 땅은 끝이 없는 불 못처럼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여덟 명의 의인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의 동요 속에서 방주를 보존하신 것처럼, 의로운 아벨부터 살았던 마지막 성도까지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이다. 비록 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온 땅이 액체의 불바다로 둘러싸일지라도 그 성은 전능하신 능력의 기적으로 방주처럼 보존될 것이다. 그것은 삼키는 요소들 속에서도 무사히 서 있을 것이다.” -영적선물 3권, 87, 88.

3. 심각한 현실

가. 땅의 주민들에게 탁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시 139:23, 24; 벧후 3:11.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거룩케 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 피한 자로서 하나님께 가납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며, 이 땅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인께서 종들과 계산하러 오실 때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준비되지 못할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자기의 의는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으로 판명될 사람들,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그 시험에서 견딜 수 있다. 대화는 거룩해야 하며, 말은 은혜로 맛들여져야 한다.” -교회증언 2권, 317, 318.

나.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더 깊은 헌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요일 2:6.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거기에 상응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열렬하고 엄숙해질 것이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진리가 그들 자신의 영혼에 깊이 심겨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고자 노력할 것이다. 진리는 오로지 바깥뜰에서 너무 많이 보존되고 있다. 그것을 영혼의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생애를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면 마음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하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생애와 무관하게 바깥뜰에서 보존되면, 마음은 타오르는 하나님의 자애(慈愛)의 불로 따뜻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특정한 몇 일 동안, 혹은 특정한 경우에 간직했다가 다른 때에는 버리고 등한히 한다. 영속적인 진리의 원칙은 단순히 안식일의 몇 시간 동안, 혹은 적은 구제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품성을 세련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만일 하늘에서 온 이 특별한 빛과 힘이 없어도 사람이 안전한 순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그의 고문과 지도자가 되고,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47.

4. 단념하지 않음

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냉담한 사람들과 그 계획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하라. 딤후 2:11~14; 신 26:18.

“전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뻐하며 크게 외치던 자들 중 많은 무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그들의 감화를 소멸시키려고 온갖 거짓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만족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을 기만당한 자로 간주하고 최면술에 걸렸거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공언하지만 그들이 대화는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들은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벰후 3:11, 12).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그러나 재림신도라는 이름을 지닌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몸치장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게 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있다.” - 초기문집, 108.

나. 반면,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가? 고후 4:18.

“가련한 이 세상의 생애에 관하여 불평하는 일을 영원히 그치고, 그대의 심령의 부담은 이 세상의 생애보다 더 좋은 생애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여기에서 실수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가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평생을 바침으로 하늘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는 무서운 실수를 범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두 세상을 다 같이 소유할 수 없다.” - 교회증언 1권, 706.

5. 더 높은 곳을 바라봄

가. 지도자와 실수할 수 있는 다른 가까운 동료들의 인간적 연약함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경고를 받는가? 사 3:11, 12; 암 2:4; 4:12.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주 신속히 불신적 태도로 무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굽은 길은 곧게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행습 중에 부패한 원칙들이 짜 놓여지고 있으며,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악의 씨앗을 뿌린다.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대신에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의문과 의심을 일으킨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81.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겸손과 극기의 정신을 간직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나는 교회에 경고하는 바이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울처럼 쉽사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정당화시키고자 한다. 여호와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책망을 받았을 때, 사울은 단호하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는 양들과 소들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연주회들과 다른 쾌락적 모임, 그들의 세속적 교제, 그들의 자아 만족, 인기를 얻기 위한 그들의 열렬한 욕망 등은 모두 그들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사 3:12).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앞에 제시해 주는 높은 표준이다.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다함이 없는 빛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경박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88.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32

1. 일반적으로 지옥불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설명하라.
2.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3. 나의 그리스도인 경험이 어떻게 깊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가?
4. 구원과 관련하여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설명하라.
5. 영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끝까지 인내함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곧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벧후 3:17, 18)

“진리의 일부를 저들 뒤로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상의 성화는 없다.” -성경주석 [화잇주석] 7권, 947.

참조할 연구교재: 사도행적, 557~567.

첫째 날(일요일)

9월 22일

1. 적극적으로 촉진시킴

가. 마지막의 불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벧후 3:12.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계 14:6, 14) 전파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행 17:31)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벧후 3:12 상단 참조).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시대의 소망, 633, 634.

2.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가. 우리 각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가? 전 11:1, 2, 6.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 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제자들을 움직여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성이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주의 강령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사도행적, 600.

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 6:10; 시 60:4.

“진리와 오류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 아래로 행군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원한 영예를 획득하자.”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77.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그분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사도행적, 600, 601.

3. 용기와 소망

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신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사 53:11; 고후 5:14, 15; 12:9.

“우리 모두에게는 맞아 감당해야 할 수고와 투쟁, 자아 부정과 은밀한 심적 고난들이 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한 슬픔과 눈물이 있고, 우리의 부족을 인하여 자책과 부끄러움이 섞인 계속적인 투쟁과 경성이 있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매우 동정적이고 부드러운 자들이 됨으로, 잘못을 범한 자들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위하여 울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갈바리!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주고 우리의 수고를 성결케 하는 심령에 작용하는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조직과 질서는 지극히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신과 심령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일을 할 것이라는 인상을 아무도 받아서는 안 된다. 마음과 육신은 거듭되는 의식과 또한 우리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감을 주고 수행할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실패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188.

나. 영원에 대한 소망이 그토록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뱀후 3:13; 시 149:4.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속량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계 3:21).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 (시 37: 11)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뱀후 3: 13). ...

그 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 곳에는 장례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산상보훈, 17.

4. 중대한 소명

가.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무엇을 강조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벵후 3:14.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12).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면,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교회증언 1권, 340.

나. 우리의 성화에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벵후 3:15, 16; 눅 21:19.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는 이생에서 모든 성경절의 뜻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적인 진리의 극히 중요한 점들이 신비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가리워진 경우는 결코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그 시대를 위한 진리로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오면 마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금식과 기도로써 성경을 상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의 고리 하나 하나가 발견되어 완전한 사슬이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실들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아무도 실수하여 흑암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언의 사슬을 살펴볼 때 우리 시대를 위해 계시된 진리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설명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우리의 행로에 비치는 빛에 대해 책임이 있다. 과거 세대에 살았던 자들은 그들에게 비치도록 허용되었던 그 빛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교회증언 2권, 692.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이것이 또한 그대의 뜻이기도 한가?” -사도행적, 566.

5. 굳건한 소망

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어 인내하라고 어떻게 권고하는가? 벡후 3:17.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 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그분께 이끄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도행적, 565.

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의 마지막 호소는 무엇인가? 벡후 3:18.

“그대들의 죄악이 그대들 앞에 가로놓인 태산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마음을 견비하게 하고 그대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대들을 깨끗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의 메아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사업은 평화요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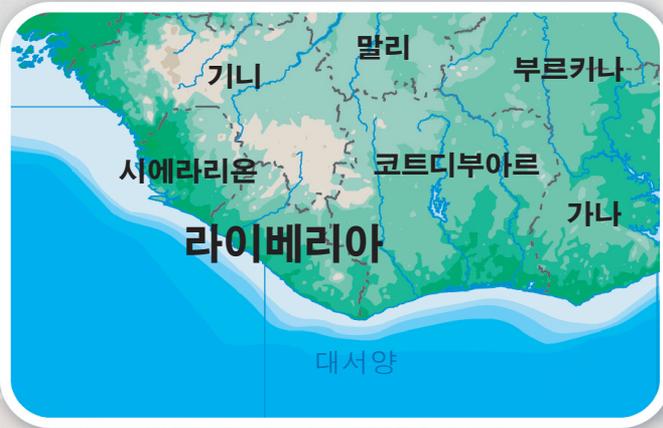
그대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대는 그분의 은혜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를 더욱 더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이 부를 깊이 생각할 때에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 그분의 의의 보호, 그분의 지혜의 충만, 아버지 앞에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벡후 3:14).” -사도행적, 566~567.

복습과 생각할 문제

일몰시각 18:21

1. 우리의 열심이 참으로 소생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2.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온갖 괴롭힘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되는가?
4. 나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 왜 매우 진지해야 하는가?
5. 나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안식일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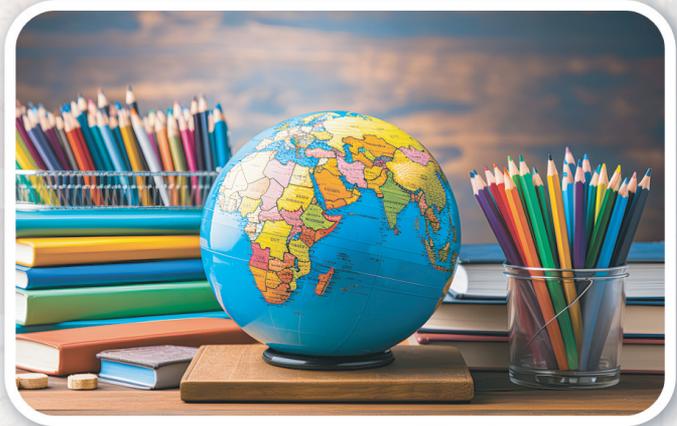


7월 6일

라이베리아의 예배당, 학교,
사무실을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8월 3일

세계 대총회 교육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9월 7일

앙골라 연합회 본부를 위한
첫째 안식일 연금

